

‘다음’ 위해 지금 잘 살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0>



김 선생님, 술이나 한잔

이런, 벌써 12월에 들어섰네요. 김 선생님, 조만간 한번 우리 뭉칩시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뭉칠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좀 모으세요. 마침 제가 분위기가 좋은 술집도 알아냈거든요. 술 한 잔 나누면서 1년 동안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보람 있던 일들 이야기나 하자구요.

네? 불자가 무슨 술이나구요?

허참... 그렇게 말씀하시니 영 결연쩍습니다. 하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 선생님 편지처럼 부처님도 재가인들 술 마시는 것을 정말 격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여섯 가지 걱정근심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잃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 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잃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면 아무도 함께 그와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은 얻을 수 없고, 본래 있던 재물은 자

통력이 뛰어나 한 마을을 위협하던 무시무시한 용왕을 무릎 꿇리고 삼귀의와 오계를 지니게 하였습시다. 선례 장로의 무용담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와 그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님,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뭘든 말씀하십시오. 다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항상 말썽을 부리던 육군비구들이 이렇게 잠깐하셨습니다.

“여러분, 출가한 사람은 비둘기 깃털 술을 얻기 어려운데 이 분은 지금 그것을 마시고 싶어 하요. 만일 그 술을 이 장로님에게 바치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비둘기 깃털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다투어 선례 장로를 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극진하게 술을 대접하였지요. 성의를 뿌리칠 수도 없었고 귀하기도 한 술이었던지라 주는 대로 마신 선례 장로는 술에 잔뜩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나오려다 의식을 잃고 문가에 큰 대자로 쓰러지더니 급기야 잠꼬대까지 하게 되었습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처님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구들이여, 이 장로를 부축해서 가져.”

연말 연시 술자리 약속이 많으시겠죠?

부처님앞에 부끄럽지 않을만큼만 드세요

푸 없어진다.’(중아함경 제33권)

아닌 게 아니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 중 상당수가 술이 원인이 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 병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저 아무 것도 아닌 것이건만 여짜 사람들 몸속으로만 들어가면 꼭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5계 가운데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의 네 가지 금지조항들은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어서 성계(性戒)라 부른 반면 음주 항목만큼은 차계(遮戒)라고 하시면서 술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죄악의 원인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원주람>에도 보면 “술 마시는 것이 죄악은 아니나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악의 원인을 짓는 일이 된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동산과 담장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선경(禪境)과 모든 착한 법을 막아 버리니, 술 마시는 일이란 마치 동산도 담장도 없는 과일나무와 같다(제93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신중이 뛰어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례(善來). 그는 위나 신

비구들이 장로를 부축해서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부처님 발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몸을 뒤척이다가 두 발이 부처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선례 장로가 평소 내게 가졌던 예의가 지금도 있는가?” “지금 없습니다.”

“저 무서운 용을 항복시킨 자가 누구였는가?” “선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물 속에 사는 도마뱀이라도 항복받을 수 있겠는가?”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신 뒤에 의식을 잃게 하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본생경> 제1편 음주품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송년회에서 술잔을 비우기 전에 꼭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술을 마신 뒤에 부처님과 마주한다면... 부처님의 그 명정한 눈빛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술잔을 비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지요?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 이미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혜오 스님

(표창사 서래각 선원장)

“참선은 무엇이고, 도는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난 9월의 어느 일요일, 표창사 서래각(西來閣) 선원장 혜오(惠悟) 스님을 처음 보았을 때 기자를 향해 던진 일갈이었다.

“지역불교현장을 가다”라는 기획취재를 위해 지역 불교 현황에 대해 이력조사기류 질문을 하려던 본 기자는 일순간 머속에서 버렸던 기억이 있다.

그 어떤 질문보다 선이 무엇이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귀중히 여기며 또 그런 질문을 해오는 수행자 만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는 스님의 의중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스님 앞에 다시 앉았다. ‘선이 무엇인지’를 여쭙기 위해서였다.

“차부터 한잔 하지,” 급한 마음에 질문부터 하려는 나에게 스님은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만큼은 질문도 잊은 채, 차를 마시는 나와 스님이 있을 뿐이었다. 몇 잔의 차를 연거푸 마셨다.

생멸하는 마음 한곳에 모으는 게 하두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자라고 하면서도 불교를 너무 몰라요. 참선은 왜 하는지, 불법의 대의는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아야 발심을 하고 신심이 깊어져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똥 막대기다” “똥 앞 갖 나무다” 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대로 의심을 해서 들어갔던 말이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지마라’ 그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해,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본인들이 터득하고 나면 참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님은 불법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불(佛)’이란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며, 누구라도 그 깨끗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다검생(多瞋生)을 통해 지어진 업력 때문에 묻혀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法)’이란 청정한 데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데 이 빛도 다검생 동안 지어진 업력에 가려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道)’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광명이 어느 곳을 가



도 걸림없이 곧고 비취칠 때를 말한다 했다.

“그럼 참선은 무엇일까? 참선은 자기의 부처를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일으키는 자력이라 해 대승법이라고 하지. 그러면 왜 참선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원각경>에도 <기신론>에도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일초동안에 칠백 번을 생멸한다고 했거든. 그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참선이야. 마음이 움직이면 고요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거든.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데 어떻게 자기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칠백 번 생멸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 가지고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야. 생멸하는 마음을 한곳에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화두고. 어떠한 생멸의 법칙도 화두에 다 다른면 화두로 융화되 돼 버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화두로 융화가 돼야 비로소 참선의 경지에 오

를 수 있고, 대승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

“참잔을 보고 참잔이라고 하고 보온병을 보고 보온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빨라 포착할 수 없는 그 작용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해져서 모든 것이 화두로 융화될 때 비로소 참선을 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참잔을 들어 보이며] 부처님이 이 그릇을 볼 때와 중생이 이 그릇을 볼 때 무엇이 다를까? 부처님도 아파서 병들어 들어가셨고, 중생도 병들고 아파하고,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드시고, 일반 사람이 보면 똑 같은 거라, 무엇이 다르냐 하는 의문이 생길까요? 간편하게 설명하면 직견(直見)과 곡견(曲見)의 차이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직견은 바로 딱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곡견은 한번 본 것을 마음속에서 굴림을 당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사물에 대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곡견에 의해 맺게 됩니다.”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지상 이벤트

• 특별보급기간: 2004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 특별보급대상: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연화1호 SBH-12000TS

- 발열량: 10,000~12,000kcal/h
- 탱크용량: 45L
- 난방면적: 22평
- 연료소비량: 1.21~1.46L/h
- 외형치수: 950×305×1,180mm
- 리모콘조절
- 사용전압 220V 60Hz
- 미니 소용기 및 연통

가격: 780,000원 특별보급가: 690,000원

연화2호 SBH-16000TMI

- 발열량: 14,000~16,000kcal/h
- 탱크용량: 45L
- 난방면적: 32평
- 연료소비량: 1.70~1.94L/h
- 외형치수: 950×305×1,350mm
- 리모콘조절
- 사용전압 220V 60Hz
- 미니 소용기 및 연통

가격: 880,000원 특별보급가: 790,000원

연화3호 SBH-11000TRI

- 발열량: 7,000~11,000kcal/h
- 탱크용량: 40L
- 난방면적: 22평
- 연료소비량: 1.80~1.26L/h
- 외형치수: 838×452×1,025mm
- 리모콘조절
- 사용전압 220V 60Hz
- 무게: 35kg

가격: 780,000원 특별보급가: 690,000원

연화7호 SCG-1012HG

- 발열량: 4,500~10,000kcal/h
- 중량: 13kg
- 가스소비량: 0.38kg/h
- 난방면적: 22평
- 외형치수: 410×500×685mm

가격: 285,000원 특별보급가: 230,000원

연화8호 SCG-2001P

- 발열량: 10,000kcal/h
- 중량: 27kg
- 가스소비량: 0.54~0.57kg/h
- 난방면적: 25평
- 사용연료: LPG
- 반사율: 고정도알미늄(φ950mm)

가격: 660,000원 특별보급가: 560,000원

특징

연화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는 심플한 외관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최적의 제품입니다

제조사: 신일산업(주)

Mahamall.co.kr 02-732-1520

만약 금덩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부처님은 '금이구나' 하면 끝이라. 그런데 중생은 금을 보면 저걸 내가 가졌으면, 팔아서 집도 사고 눈도 사고 장기도 갖으면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림을 당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내가 받게 되는 거라. 부처님의 세계나 도를 깨친 도인의 세계는 일체가 직전인 것이고 중생의 세계는 일체 곡견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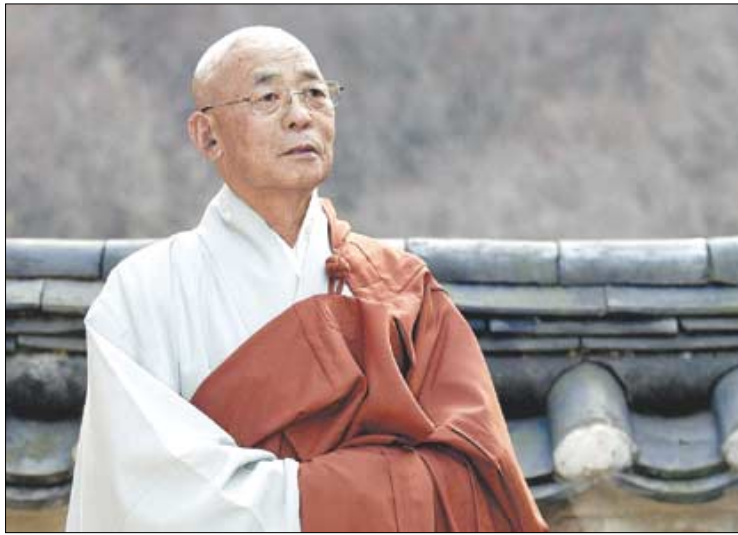
곡견을 직견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으로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참선하면 됩니다. 육교에서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구나' 하고 한생각 일으키고 천원을 주면 벌써 씨앗을 심게 돼 업이 됩니다. 그 업은 그 사람에게 어느 때인가 천원을 받아야 해결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을 짓지 않고 한량없는 보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일체사물을 바로 보는 이가 부처

<선문촬요>에 보면 '마음을 버리고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한량없이 큰 보시다'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 누워있는 걸 보면, '아 누워있구나' 하는 직견을 하고 화두를 챙기며 천원을 주게 되면 나는 화두 챙겨서 좋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아서 좋은 거라. 그러면 하나도 인연이 안 이어지는 것이거든. 부처님은 살인을 여러 수십만 명을 해도 살인이 아니고, 중생을 손가락만 다쳐도 살인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생겼었다. 흰백 번까지는 아닐지라도 몇 십 가지 생각은 족히 났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몸을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은 원효대사 <기신론소>에 나오는데 사사대 즉, 입하는 몸과 추사대, 즉 생각하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 사사대는 소멸됩니다. 우리 몸이 사사대 뿐이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린다면 공부할 게 뭐 있으며 부처님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는 추사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추사대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차도 타고 친구도 만나고 있다면 밤에 자는 것은 또 뭐니까? 친구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은 추사대라 하고 방에 자는 몸을 사사대라 합니다.

입하는 몸은 죽으면 소멸되지만, 생각의 몸은 선업을 지으면 선업 지은대로 악업을 지으면 악업 지은대로 지옥, 아수라, 축생 등 육도 윤회를 할 수 밖



사랑과 미움, 시비, 생사 등 세상만사의 작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다고 강조하시는 혜오 스님.

에 있습니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생각하는 몸을 없애는 길이 바로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추사대 몸마저 없애려면 남는 것은 깨끗한 불성만 남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해서 태양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는데 그 마음만 내면 인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 시비, 생사 등 세상만사의 작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음을 설파하는 스님의 법문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참선 정진하라. 그러면 결국 추사대의 몸마저 소멸되고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어 스님은 '요즘 깨달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옛말에 우기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심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면 결코 경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질타 말했다.

무심은 일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화두로 화했을 때를 말하며 누구든지 무심의 경지를 지나야 일행삼매(一行三昧), 일상삼매(一相三昧)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때서야 어떠한 일체 모든 행동을 하더라도 화두 드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며 배고픈 밥 먹고, 피로하면 쉬는 평등법에 이른다 는 설명이었다.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며 '내가 깨달았다'거나 '공부가 됐다'는 아상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재가자의 공부에도 각별한 믿음을 내비쳤다.

'표충사에도 대흥선원이라고 시민선원이 있는

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생활을 다 팽개치고 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맞아요. 모든 것을 체형해서 일으키는 도가 제일 속성하다 했어요. 세상이 하면서 도를 깨달으면 스님들보다 백배 이상의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선을 하고 싶으면

생활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

좋은 스승을 정해놓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법문 듣고, 참선하는 법도 배우고, 집에서 시간나면 참선하세요. 물을 게 있으면 절에 와서 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하면 도를 깨치게 돼 있어요.'

불경기를 맞아 세상살이가 어려워 아우성이라고 여쭙자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어서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는 반문이 돌아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못산다고 팔팔 뛰지만 말고 지금 못사는 것은 이전에 지어놓은 일이 다음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지금 옳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옳고 바르게만 하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못되는 것만 팔팔 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 옳고 바르게만 행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역전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옳게 행하면서 하루에 십분이라도 참선 정진을 이어가는 불자들이 되십시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평생 수좌로 정진... 4백년만에 표충사 선원 개설

혜오 스님은 혜오 스님은 2001년 표충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주지실을 내놓고 그곳에 선원을 개설했다. 임진왜란 이후 4백여 년 만에 서레각 선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서레각이 현대 한국불교의 선 불장이 되길 바라는 서원이 담긴 이 불사는 평생을 선원 수좌로 정진해온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명이 방부를 들이는 서레각 선원은 다른 선원과 달리 11명은 선원에 살고 9명은 선방과 후원을 오가며 총무, 원주 등의 소임을 하며 정진한다. 법철 스님의 인도로 1964년 한국 스님은 은사로 계를 받은 후 4년 여 동안 스님을 모시며 "참선해서 도인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불암사 9년 정진 동안 수좌들의 청에 못 이겨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던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 해인사, 수원 용주사 초대선원, 오대산 상원사, 인천 용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92년 선학원 선원장, 85년 통도사 보광선원 선원장을 역임했고, 모관음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표충사 주지와 서레각 선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교(禪敎)에 두루 밝은 스님은 불경이나 조사 어록 번역을 해왔는데 12월 <나눔 스님 어록> 출판을 앞두고 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약사 여래도당

신년 해맞이 대법회

부처님 가사에 얽힌 전설이 깃든 전남 원도 약산 가사 부락에 자리한 해동사는 약사여래불을 모신 도량으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영험을 얻고, 암도 치유되는 신비한 기도성취 도량입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해동사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는 무사회향과 올유년 새해 소원 성취발원을 위한 철야정진 기도(1080배), 연비식을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질병치유와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4년 12월 31일(오후 6시) ~ 2005년 1월 1일

■ 동참금 : 1인 1만원 (저녁, 떡국 공양)

해동사 주지 일광 합장
전남 원도군 약산면 해동리 가사마을(가사리 해수욕장)
061)555-0879, 011-640-0879

▶ 오시는 길 : 전남 강진-미량 선착장-약산 해동사

원적외선 사찰 난방

원적외선 웰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특 징

1. 원적외선 복사열로 바닥과 내부의 공기까지도 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2. 바닥이나 벽면의 기초시설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함이다.
3. 기온값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함이다.
4.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가 탁하지 않고 깨끗함이다.
5. 전지피가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환선과 화재위험이 없음이다.
6.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발요원 제로임이다.
7.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인 차세대 난방 시스템임이다.
8. 불사 신축,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상당 완료됨이다.

설치장소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병설로, 펜션, 오피스텔, 아파트베란다, 기숙사, 고시원, 원도방, 쉼터, 선원주거원, 어린이집, 음식점, 치료 및 의원실, 콘도미니하우스, 축사실, 옥탑방, 전원주택...

시 공 처
통도사 백운암법당, 오시재, 변산반도 월명암(법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동향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서울 불광사(다량원), 북한산 삼봉사(주지실, 요사채, 공양실), 포천 정안사 천도고 서울 흥구 수련원(서울 문화재 3호), 가평 불광사(요사채)

고정형천
MBC-TV 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곡빌딩 33층 3304호 · H · 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